

쉬리

Korean splendid fish

| *Coreoleuciscus splendidus splendidus* (Mori, 1935)



분 포 예성강, 임진강, 한강, 웅천천, 금강, 만경강 등에 분포한다.

형 태 몸은 옆으로 가늘고 길며, 주둥이는 뾰족하다. 입은 주둥이 아래에 위치하고 작고 말굽모양으로 되어있다. 옆줄은 몸의 가운데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체색은 등 쪽이 짙은 검은색, 배 쪽은 은백색을 띤다. 각 부위별 모든 지느러미에는 1~2줄의 검은 줄무늬가 있으며, 꼬리지느러미 끝 부분에는 작은 점이 있다.



'참쉬리'의 신종 보고

학명은 *Coreoleuciscus splendidus aeruginos* (Song and Bang, 2015)으로 낙동강, 광양동천, 섬진강, 이사천 등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한다. Song and Bang (2015)에 의해 다른 종으로 발표되었고, 형태적 특징은 등지느러미 위쪽에 한줄의 검은띠가 있으며, 꼬리지느러미 끝에 작은 검은 점이 없는 것이 쉬리와 차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낙동강 상류에 이입된 쉬리와 참쉬리 사이의 유전형질이 중간 특징을 나타내는 잡종개체가 많이 출현하고 있어 생식적 격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을 따라 유영중인 쉬리

1) 환경조성

쉬리의 자연 서식환경은 유속이 빠르고 바닥에는 돌과 자갈이 깔린 여울에 서식하며 수조 내 사육 시 유속을 일으켜 자연 서식환경과 유사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수조 내 유속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될 때 움직임이나 먹이먹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조절해주어야 하며 유속이 없는 수조에서는 사육이 가능하지만 활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질병발생에 원인을 줄 수 있다.

유속 발생은 수중모터 또는 여과기를 설치해주고 수조크기에 따라 제품 사양 등을 고려해야한다. 바닥에는 작은 자갈을 깔아주는데 유속이 흐르는 방향으로 작은 자갈과 돌을 쌓아주면 쉬리는 유속의 흐름을 따라 유영하다가 돌 위에 휴식하며 생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쉬리의 정면 모습

2) 먹이주기

자연 서식환경에서 쉬리는 바위에 붙어 있는 부착조류를 먹기도 하며 물속에 살고 있는 수서곤충을 주로 먹는다. 수조 내에서 먹이는 시판용 관상어 사료를 주는데 입 크기에 알맞은 알갱이 형태의 사료를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준다.

기타 먹이는 냉동장구벌레 또는 새우류를 주며 3회/일 정도 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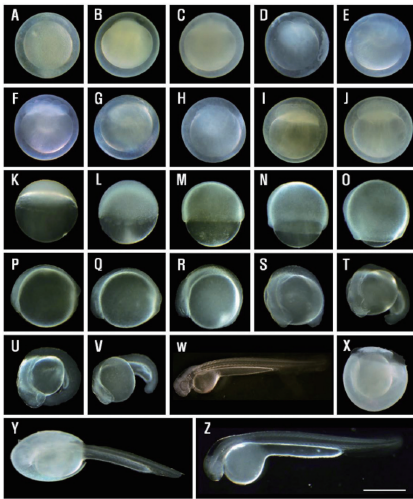
침강형 배합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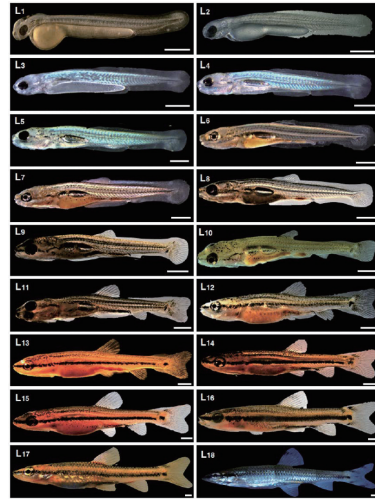
여울수조에서 유영중인 쉬리



돌 위에서 휴식중인 쉬리



난발생 과정(송 등, 2020)



자치어 형태발달(송 등, 2020)



수정란

부화 후 88일째

3) 번식방법

수조 내에서의 번식은 다소 어려운 편이다. 산란조건이 맞으면 자갈이 깔린 수조 바닥에 산란하며 수컷 여러 마리가 암컷을 따라다니며 복부를 자극하면 암컷이 산란과 동시에 수컷이 방정하여 수정한다. 산란조건은 광 주기와 먹이공급, 수온 등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지금까지는 산란이 임박한 어미를 대상으로 호르몬 주사 후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한다.

자연산란 시기는 4~6월로 산란이 임박한 암컷은 복부가 팽만되어 있고 생식공 주변이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수컷은 암컷에 비해 체형이 가늘고 생식공 주변을 눌러보면 정액이 흘러나온다. 수조 내에서 산란이 확인되면 알을 수거해 관리하거나 산란 중인 암컷과 수컷을 대상으로 인공 수정하여 수정란을 관리해준다. 수정란 관리는 시판되는 부화기를 이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